VISION 5

미래 성장산업

선진국 가는 길,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미래성장산업

16 초일류 과학기술강국, 만들겠습니다.

'기술 강국은 선진대국'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융합기술 발굴
- 산업군별 성장동력 발굴
- 보건 · 의료 · 제약 산업 융합화에 투자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경쟁력 확보 · 지원
- 신약개발사업 임상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 의료서비스산업 국제화 지원
- 한방 · 바이오 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과학기술인 복지환경 대폭 개선
-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17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미래의 양식'

-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 핵심부품 · 첨단소재 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 무역적자 근본개선

18 환경과 경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 · 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지원
-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 가용폐기물의 전량 에너지자원화 추진
- 1조 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및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 추진 가속화

19 창조산업강국,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창조산업의 꽃'

- 광고 · 디자인 · 패션 · 건축 · 캐릭터 산업 지원
- 영화 · 음악 · 방송 · 게임 분야 경쟁력 강화
- CT도서관, 게임산업박물관, 컴퓨터박물관, 미디어아트미술관 설립
- 밝고 생산적인 인터넷 문화의 정착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80 western

VISION 5

미래 성장산업

목표 16

초일류 과학기술강국,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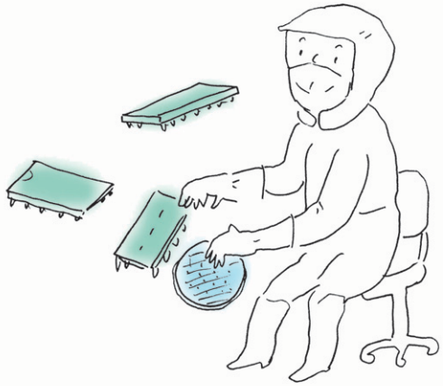
'기술 강국은 선진대국'

IT(정보기술) · BT(생명공학) · NT(나노기술) · CT(문화기술) 등 융합기술 발굴 / R&D투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는 첨단기술융합의 시대입니다. IT(정보기술) · BT(생명공학기술) · NT(나노기술) 등 기술융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융합화에 대비한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IT융합기술개발에 총 1조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임베디드S/W 등 IT기술을 융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또한 IT 인프라 · 기술을 기반으로 BT(생명공학기술)와 NT(나노기술)를 접목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광 · 전자 융합소재기술(NT), 바이오 칩 · 센서기술(BT), 생체정보 응용기술(IT+BT=IBT)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82 western

산업군별 성장동력 발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군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성장동력의 발굴은 매우 신중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동력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IT융합기술개발('08년 706억 원), 부품소재 육성('08년 1,565억 원)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세계 선도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 규제완화, 기술성공률 제고, 수요창출로 본격적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08년 태양광·바이오 등 3,960억 원 투자)하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발전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와 IT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러한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추진체제(추진단 구성→후보군 발굴→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제시→본격 추진)를 마련하고 2008년 상반기까지 후보군을 발굴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제약산업 융합화에 투자 확대 / 선진국형 메디컬산업 육성

메디컬산업은 선진국형 첨단미래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건·의료·제약 산업 시장은 약 78조 원('05년)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합니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제약 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고도의 접착기술을 이용한 미래 융합의료서비스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첨단지식자본이 빠르게 융합되도록 의료서비스산업에 기술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연생산액을 1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84 western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경쟁력 확보 · 지원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지원은 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및 복지체계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약개발사업 임상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 신약개발 등 고부가가치산업 확대 투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의 신약개발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약개발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의약품 관련 규정의 국제화, 임상시험 지원 확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약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약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각 연구소 및 제약관련 회사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86 western

의료서비스산업 국제화 지원

의료서비스산업은 이제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들의 해외연수 및 각종 의학기술의 교류는 물론, 해외의료진들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의료기관으로 찾아 나가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내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병원과 해외의료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기의 기술규격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관광특구를 설치하여 의료수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의 첨단시설투자를 유도하여 치료와 관광을 겸한 외국인의 국내 장기체류를 본격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한방 및 한의약산업 육성

우리 전통의 의학인 한방·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 한방·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한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현대의료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첨단메디컬산업의 육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방산업 육성과 한의약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의학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바이오산업 육성의 조화로운 연결고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세계민간요법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세계 약용식품을 DB화하고 물리치료법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등 한방의 발전과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88 western

과학기술인 복지환경 대폭 개선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원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 기관 고유사업을 매년('09년~'11년) 50% 이상 증액·지원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제도(연구성과중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출연의 기본 인건비를 현 30~4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기반을 확충하고, 특별공로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퇴직연구원 활용시책(원로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07년 252명 → '08년 250명 → '09년 300명) 여성 과학기술인이 국가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성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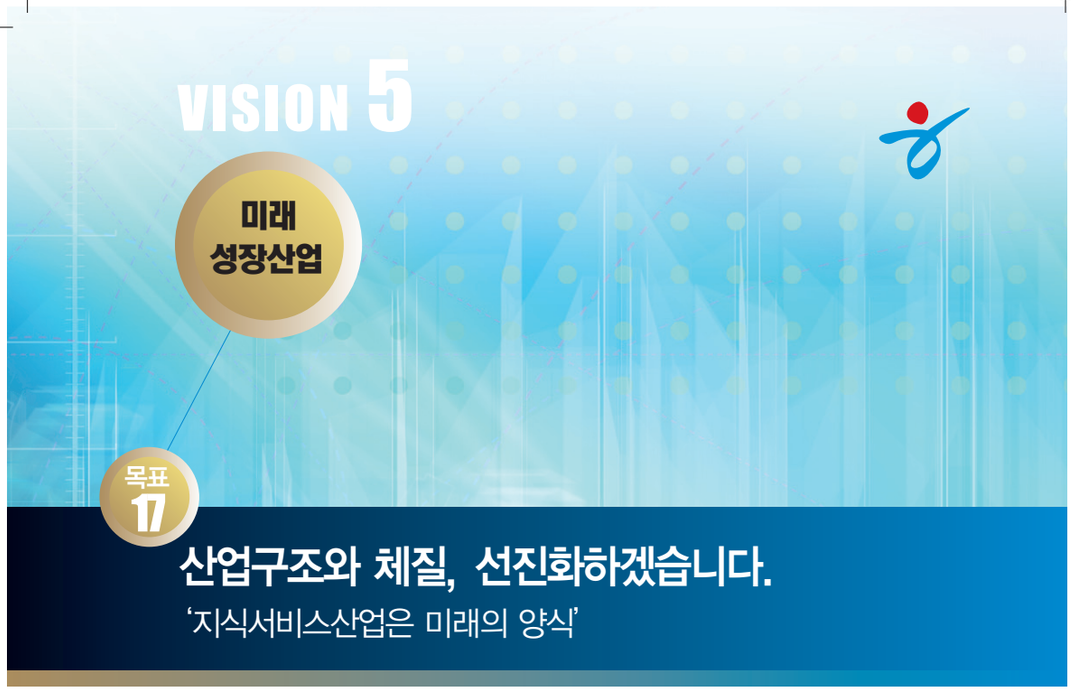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 국산무기첨단화 및 방위산업의 민간산업화 추진

방위산업은 군 전력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므로 내수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의 낮은 기술력에 따라 해외구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이 잘 융합된다면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 군 전력증강사업의 주요 핵심과제로 기술R&D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우선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를 확대, 2006년 4.7%였던 것을 2012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활성화로 첨단 국산무기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외에 국제적인 수출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수출마케팅을 강화하여 해외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업체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수분야 소재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을 위해 부품·소재산업육성계획의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지원센터 및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 고용창출 유망서비스업종의 발굴

우리나라는 1차, 2차 산업에서 점차 3차 산업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비중은 낮고 세계 경쟁력도 낮은 편입니다.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3차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 유망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컨설팅, 시험·분석, 패키징, 연구개발전문업, 유통, 프랜차이즈, 디자인 등 고용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회계, 법률자문, 경영컨설팅, 재무 등의 선진국형 지식서비스산업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전문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유망하고 적합한 서비스분야 신사업 모델개발, 선진물류 유동시스템 구축 등 타업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R&D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조사·금융·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콘텐츠·IT·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한 R&D투자 로드맵을 수립, R&D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서비스분야 공공수요 창출로 서비스시장을 확대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서비스의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문은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겠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전문학과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대학에 서비스공학, 서비스과학 분야 학과를 육성, 20개 컨설팅 전문대학원 신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전문학과 배출 인력의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해외취업과 아울러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경험을 축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92 western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한국 제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정책의 세계화, 지속적인 기술력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존 제조업과 최신 서비스기술의 융합화 등에 따른 신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서비스(회계, 인사, 노무, 경영, 컨설팅, 물류, 정보화 등)의 산업화를 집중 추진하고 U-Learning, U-Health, U-Legal Service, U-Logistics 등 IT기반의 지식서비스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내의 정보화, R&D, 기업간의 업무 협력관계(공급망관리 등), 고객관리(CRM) 등 기업·산업의 전반적 디지털 접목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산업디지털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 제조업 노하우의 지식서비스 상품화 모델, 또는 전문서비스 기업화 가능한 모델, 기존 제조업에 IT 컨설팅 교육을 접목한 모델,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업종 모델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핵심부품·첨단소재 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 무역적자 근본개선

부품·소재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의 뿌리입니다. 제조업 공동화와 대일무역적자 해소 등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부품·소재 전문 기업의 가업 계승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총제에 의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모듈 부품, 첨단소재 생산기업, 원천기술 개발·보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부품·소재 글로벌 스타기업'(현재 200개 수준)을 2012년까지 500개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를 2006년 156억 달러에서 2012년까지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 부품·소재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점차 확대하고 부품·소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뢰성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VISION 5

미래 성장산업

목표 18

환경과 경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지원

환경산업은 미래유망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산업의 기술을 접목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른 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환경산업의 육성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큽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유망 환경기술에 R&D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환경R&D를 2008년 4.2%(3천억 원)에서 2012년까지 10%(8천억 원)로 확대하고,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민관펀드로 2012년까지 1천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전문대학원을 지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탄탄한 내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 M&A,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 환경산업육성자금(연 1천억 원 규모)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컨설팅과 수출협상과 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설비와 해외천연자원 현물교환 등 환경산업을 자원외교와 연결하고, 중국·베트남 등과 맞춤식 환경기술을 공동개발하겠습니다. 환경산업 지원을 통해 이 분야 수출액을 2005년 1조 원 수준에서 2012년까지 8조 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96 western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물과 관련된 산업과 기업의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의 전문화·광역화율을 2012년까지 50%로 높일 수 있습니다.

- **수도사업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하겠습니다.** 공사화, 민간 위탁으로 민간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화 및 급수체계 조정으로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물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먹는 물의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품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병입 수돗물 유상판매 제도를 도입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물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물산업 해외지진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연계하겠습니다.

가용폐기물의 전량 에너지자원화 추진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 폐기물의 전량 에너지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2007년 현재 1.6%에 불과한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2012년까지 25%로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2012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성폐기물 가스화시설(20개소), 매립가스회수시설(28개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전력생산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 **가용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매립부담금 부과로 에너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전국 4대 권역별 '폐기물 에너지 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열병합발전시설 등의 통합·집중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198 western

1조 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및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국제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가입국이 연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면도 있어 적절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환경과 경제를 상생케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1,400억 원 수준인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2012년까지 1조 원 수준으로 높이고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 국내 탄소시장을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를 연계한 시범시장을 개설한 다음 시장간 교차거래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2010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검·인증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배출권을 활용한 '탄소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 탄소배출권시장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수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 수출산업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동남아 지역 수요조사 및 DB구축을 실시함과 아울러, 현지 로드쇼와 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기상산업의 부가가치창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별·지역별 수요에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육성하고 기상·기후정보 이용기술을 확산하는 한편 컨설팅 기법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 추진 가속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대국들이 에너지산업에 사활을 건 자원확보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무기화·전략화' 추세와 더불어 전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이슈는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 신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한국형 해외자원 개발모델을 개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산업을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외교·에너지 외교에 역점을 두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성장 에너지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내의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NT, ET를 접목한 전략기술 개발로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부문을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부문의 부품·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에너지소비 및 공해 저감형 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늘리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효율등급 체계를 개편(현행 : 8군 → 단일군)하고 연비평균기준을 2012년까지 현행보다 15% 강화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국형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충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도 병행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로 제고하겠습니다.



VISION 5

미래 성장산업

목표 19

창조산업강국,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창조산업의 꽃'

광고·디자인·패션·건축·캐릭터 산업 지원

기능성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광고·디자인·패션·건축·캐릭터 분야는 기능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초입니다.

■ **국가디자인위원회(NDC : National Design Council)를 설치하여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디자인을 통합·관리하겠습니다.** 디자인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자인 고등교육기관을 특성화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R&D 예산을 증액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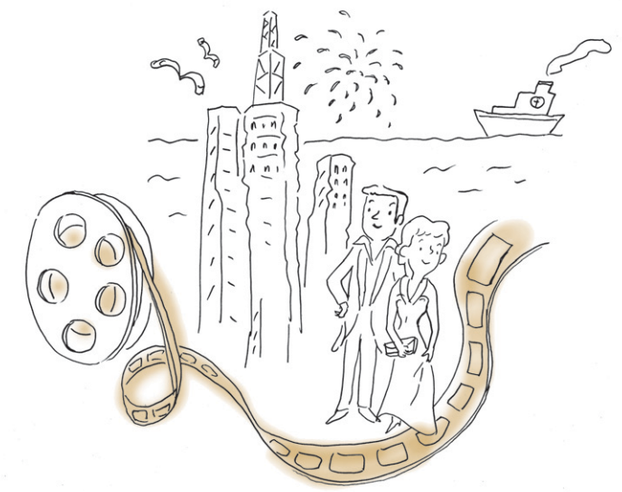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202 western

영화·음악·방송·게임 분야 경쟁력 강화

영화·음악·방송·게임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진입규제 완화, 교차소유 허용, 인수합병 촉진 등 방송·통신의 상호발전을 위해 규제체계 및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디지털 방송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CT도서관, 게임산업박물관, 컴퓨터박물관, 미디어아트미술관 설립

창조산업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사회적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창조산업의 원동력이고 교육은 창의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입니다.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창의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하도록 창조산업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 CT도서관(최첨단 문화기술의 결정체로 IT강국을 넘어 CT강국을 향하는 상징), 게임박물관(세계 최초), 컴퓨터박물관(미국 실리콘밸리 다음 두 번째), 미디어아트미술관을 설립하겠습니다.

■ 이야기(STORY) 관련 산업(영화, 게임, 뮤지컬 등)의 소재 개발을 위해 국내 및 전세계의 이야기(설화, 전설, 야담 등)를 DB화하고 대학의 국문학과에서도 '이야기의 산업화'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FQ)05한 나라 본 책(178~205) 2008.3.29 4:45 AM 페이지 204 western

밝고 생산적인 인터넷 문화의 정착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의 인프라 및 활용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으나 정보화에 따른 각종 역기능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여 올바른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화사회 윤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윤리에 관한 국가의 기본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각 부처의 과제를 직접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초·중·고 또는 전문 연수기관 등의 교과과정에 정보윤리교육을 개설하고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시험에 윤리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올바른 정보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